

AIIB의 對북한 인프라 투자 가능성과 시사점

이현태 세계지역연구센터 중국경제실 중국팀 부연구위원 (htlee@kiep.go.kr, Tel: 044-414-1022)

차례

1. 서론
2. AIIB 발전 동향
3. 對북한 투자 가능성
4. 시사점

주요 내용

- ▶ AIIB는 중국이 주도하여 2016년 1월 출범한 신생 다자개발은행(MDB)으로 회원국(87개국)과 시행 사업(13개국, 28개 사업, 53억 4,000만 달러)을 크게 늘리면서 국제금융기구로서 성공적으로 안착
 - 국내외에서 향후 북한 개발과 관련하여 AIIB가 북한 인프라 투자에 참여할 수 있을지에 대해 관심 증대
- ▶ AIIB의 북한 인프라 투자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① 북한의 비가역적 비핵화 진행과 대북제재의 해제 ② 투자 가능 사업들의 각종 리스크 평가와 비용-편익 분석을 통한 수익성 확인 ③ AIIB 이사회 논의와 총회 최대 다수결 통과 ④ 북한정부의 적극적 협력 의지 등이 필요
 - 따라서 실제 사업 추진에 이르기까지는 AIIB, 한국, 북한, 국제사회 등 여러 당사자들의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한 사안으로 판단
- ▶ 북한 인프라 투자가 이루어질 경우, AIIB는 ① 개발 가능 인프라 사업 발굴·조사 등에 '프로젝트 준비 특별기금'을 지원하는 방안 ② 정부보증사업에 타 MDB 등 다른 금융기관들과 공동유자로 참여하는 방안 ③ 북한 인프라 개발 펀드를 설립하여 다양한 국내외 자본을 유치하여 투자하는 방안이 유력
 - 민간 자본의 참여를 중시하는 AIIB의 정책을 고려해볼 때, AIIB의 북한 투자는 초기에는 정부보증사업에 공동유자 위주로 참여하다가 점차 개발 펀드 등을 통해 민간 투자를 유도하는 방식을 늘려나갈 것으로 예상
- ▶ AIIB의 초기 북한 인프라 투자 사업으로는 AIIB 회원국(한국, 중국, 러시아)과 북한이 공동으로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초국경 협력 인프라 사업이 유력할 것으로 전망
 - 한국의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및 '신북방정책'에서 남·북·중, 남·북·러의 초국경 교통·에너지 인프라 사업과의 접목 가능
- ▶ 한국정부는 북한의 비가역적 비핵화가 진행되고 대북제재가 해제되면서 북한 개발 국면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면 AIIB의 북한 인프라 투자 및 북한의 세계금융기구 가입을 위해 노력할 필요
 - 북한의 인프라 개발 자금이 크게 부족한 상황에서 향후 정부는 AIIB의 북한 투자를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음.
 - 다만 국내 일부의 기대와는 달리, AIIB의 對북한 인프라 투자는 단기간에 쉽게 이루어질 수 없는 지난한 과정을 겪어야만 가능하기에 차별한 접근이 필수
 - 또한 북한의 IMF, WB 등 세계금융기구 가입을 지원하는 등 북한이 개발을 위한 다양한 공적자본, 민간자본을 유치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

1. 서론¹⁾

■ 최근 남북정상회담과 북미회담이 열리고 북한의 비핵화 진전에 따른 북한 개발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면서 중국 주도의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Asia Infrastructure Investment Bank)이 북한 인프라 투자에 참여할 수 있을지 관심 증대

- 남북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의 자료를 전달하고 김정은 위원장도 북한의 철도·도로 등 인프라 부문의 낙후성을 인정한 가운데, 북한 인프라 개발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정계, 재계, 학계, 언론계를 중심으로 진행 중
- 특히 주요 교통인프라 구축비용만 15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등²⁾ 막대한 북한 인프라 개발 비용을 고려할 때 다자개발은행(MDB: Multilateral Development Bank) 등 국제금융기구나 글로벌 금융시장으로부터의 자금 조달이 필요한 상황
- 이와 관련하여, 중국이 주도하여 설립한 신생 MDB인 AIIB가 비핵화 이후 과연 북한 인프라 투자에 참여할 것인지에 대해 관심 가중
 - 북한 개발이 우선 인프라 사업 위주로 진행될 것이고, 중국은 이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인접국이며, AIIB의 사업지역(아시아)에 북한도 포함된다는 점에서 다른 MDB보다 더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음.

■ 이에 본고는 AIIB의 북한 인프라 투자 전망을 분석하고 한국에의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함.

- 우선 AIIB의 최근 발전 동향을 소개하고 기존 사업, 사업의 투자(운영) 원칙 등을 분석한 후, 이를 바탕으로 AIIB가 북한 인프라 투자에 참여할 가능성을 평가하고 가능 사업 방식, 유망 사업 분야를 제시하고자 함.
- 또한 AIIB의 북한 인프라 투자 참여와 관련해서, AIIB의 주요 참여국이자 북한 개발의 주요 관계국인 한국정부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함.

2. AIIB 발전 동향

■ 2018년 6월 25~26일 AIIB는 ‘인프라 자금 조달: 혁신과 협력(Mobilizing Finance for Infrastructure: Innovation and Collaboration)’라는 주제로 인도 뭄바이에서 제3차 연차 총회 개최³⁾

1) 본고는 이현태, 김준영(2018. 6),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의 북한 개발 투자 가능성과 시사점」, 『현대중국연구』, 제20집 1호에 기반을 둔 것으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이 논문을 참고.
 2) 금융위원회(2014), 「한반도 통일과 금융의 정책과제」.
 3) 2016년 1차 총회는 중국 베이징, 2017년 2차 총회는 한국 제주도에 개최됨. 지난 총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현태, 김준영(2016), 「AIIB 발전 전망과 정책적 시사점」, KIEP 오늘의 세계경제, Vol. 16, No. 25; 이현태, 김준영, 오윤미(2017), 「AIIB 발전 현황과 시사점: 제2차 한국 연차총회를 중심으로」, KIEP 오늘의 세계경제, Vol. 17, No. 22 참고.

- 진리천 총재를 비롯한 AIIB 지도부와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 등 80여 개국 회원국 대표들이 참석하여 그간의 사업성과를 발표하고 향후 발전방안 논의
- 총 3,000여 명의 정부기관, 국제기구 관계자, 기업 관계자, 언론인들이 참여하여 인프라 민간 금융 활성화, 다른 MDB 및 지역 어젠다(일대일로 구상, 메콩강유역개발사업 등)와의 협력, 지속가능한 인프라 개발(환경 및 사회 규범 준수) 등 AIIB 핵심 현안에 대한 토론 진행

■ AIIB는 2016년 1월 출범한 3년차 신생 MDB지만 회원국과 시행 사업을 크게 늘리면서 국제금융기구로서 성공적으로 안착했다는 평가

- 출범 후 2년 6개월 동안 13개 국가에서 28개 사업(약 53억 4,000만 달러 규모)을 승인하고 30개국(57개국 → 87개국)을 새로 가입시키면서 국제사회에서 위상 강화
 - 회원국이 87개국(3차 총회에서 레바논을 87번째 가입국으로 승인)으로 늘어나면서 아시아 대표 MDB로서의 위상 공고화(아시아개발은행(ADB: Asian Development Bank)의 67개국을 크게 추월)
- 2017년 6~7월 3대 국제신용평가기관(S&P, 무디스, 피치)에서 최고 신용등급(트리플 A)과 신용등급 전망 '안정적'을 획득하여 향후 글로벌 금융시장에서의 자금조달이 용이할 것으로 전망
- 기존 MDB와의 충돌 가능성, 중국의 과도한 개입 가능성, 부족한 내부역량(2018년 5월 현재 직원 180명 내외) 등 여러 우려를 딛고 기존 국제금융체제와 협력하면서 사업 영역을 확장하는 중

■ [승인 사업] 2018년 7월 현재 AIIB는 에너지, 교통·운송 등 28개 사업(13개국)에 총 53억 4,000만 달러의 용자 지원 승인(그림 1, 그림 2, 표 1 참고)

- 2017년 이후 승인 건수 및 금액이 크게 늘어나면서 사업 확장(2016년: 8개, 2017년: 15개, 2018년 6월 까지: 5개 승인)
 - 실무진의 빠른 심사(Fast Track)로 신속한 사업 추진(2년 이상 소요되는 기존 MDB와는 달리 3~6개월 안에 신속 심사)
 - 분야별: 에너지(금액 비중: 47.5%, 건수 비중: 42.8%), 교통·운송(금액 비중: 24.1%, 건수 비중: 25.0%) 인프라 분야에 집중 지원
 - 지역별: 동남아시아, 남아시아 사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특히 인도 사업 비중 증가(7건, 약 13억 달러로 금액·건수 기준 약 25%).
- 대부분 사업이 ADB, 세계은행(WB: World Bank),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European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등 다른 MDB와의 협조융자(Co-financing)로 추진
 - AIIB는 현재 신생 MDB로서 다른 MDB과 협력을 통해 리스크 경감, 사업운영 노하우 습득, 국제 공신력 제고 등을 추구

그림 1. AIIB 승인 사업 분야별 비중(금액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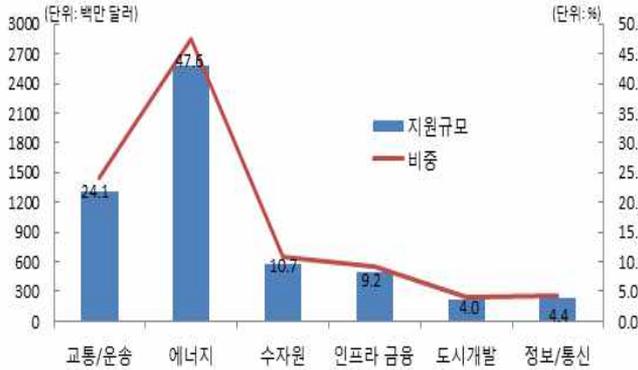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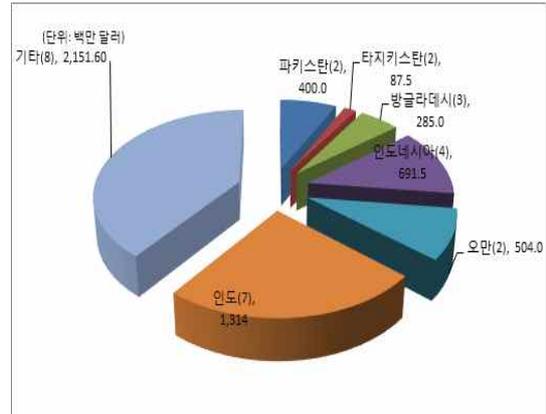


그림 2. AIIB 승인 사업 국가별 비중(금액 기준)



주: () 안의 숫자는 분야별 사업건수를 나타냄.
자료: AIIB 프로젝트 웹페이지(<https://www.aiib.org/en/projects/approved/index.html>)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주: () 안의 숫자는 국가별 사업건수를 나타냄.
자료: AIIB 프로젝트 웹페이지(<https://www.aiib.org/en/projects/approved/index.html>)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표 1. 2018년 승인 사업

국가	프로젝트명	승인날짜	분야	사업규모 (백만 달러)	자금 조달 구조
방글라데시	방글라데시 볼라 IPP(Bangladesh Bhola IPP)	2018.2.9	에너지 (발전)	271.9	AIIB(22.1%) IsDB, Infrastructure Development Company Limited(77.9%)
인도	마드야 프라데시 농촌 연계성 제고 (Madhya Pradesh Rural Connectivity Project)	2018.4.11	교통/운송 (도로)	502	AIIB(28.1%) WB(42.0%) 인도정부(29.9%)
인도	국내 투자 및 인프라 건설 기금(National Investment and Infrastructure Fund)	2018.6.24	multi-sector (인프라 금융)	600 (phase I)	AIIB(16.6%) 인도정부(83.3%)
터키	투즈 골루 가스 저장 확대(Tuz Golu Gas Storage Expansion Project)	2018.6.24	에너지 (가스)	2,735	AIIB(21.9%) WB(21.9%) IsDB(12.7%) BOTAS(26.8%) 기타 상업대출 (16.4%)
인도네시아	전략적 관개 현대화 및 긴급 복구 (Strategic Irrigation Modernization and Urgent Rehabilitation Project)	2018.6.24	수자원 (수자원·홍수 관리)	578.0	AIIB(43.3%) WB(43.3%) 인도네시아 정부 (13.5%)

주: 2018년 이전 승인 사업은 이현태, 김준영, 오윤미(2018, 2),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은 어떠한 협력을 추구해야 하는가?」, 『한중관계연구』, 제4권 1호 참고.
자료: AIIB 프로젝트 웹페이지(<https://www.aiib.org/en/projects/approved/index.html>, 검색일: 2018. 7. 15)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3. 對북한 투자 가능성

가. 투자 요건

■ 현재 AIIB의 북한 인프라 개발에 대한 투자는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다음에 열거된 매우 어렵고 복잡한 과정을 통과해야 할 것으로 예상됨.

■ 우선 북한은 현재 AIIB 회원국이 아니기에 회원국 트랙(track)으로는 AIIB의 지원을 받을 수 없음.

- AIIB 회원국이 되기 위해서는 IBRD나 ADB의 회원국이어야 하는데 북한은 두 기구에 가입되어 있지 않음.
- IBRD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자국의 재정 통계를 공개해야 하고, ADB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총회에서 3/4 이상의 투표권(voting power)을 얻어야 가입할 수 있음.⁴⁾
- 또한 AIIB는 회원국 가입 심사 규정에 국제관계에 대한 언급이 있는 등,⁵⁾ 북한이 비핵화를 진행하고 국제사회의 인정을 받기 전까지는 AIIB 가입이 사실상 어려움.

■ 단 AIIB는 비회원국에서도 총회 표결을 통해 인프라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규정이 있어 북한은 비회원국 자격으로 AIIB의 투자를 받을 수 있음(표 2 참고).⁶⁾

- AIIB 이사회 논의를 거친 후 총회에서 최대 다수결(Super Majority, 회원국의 2/3, 투표권의 3/4 찬성)을 통과할 경우 가능함.
- 현재 국제사회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용인하지 않고 UN의 대북제재가 시행되고 있기에 실질적으로 표결 통과가 어려우나, 향후 북한의 비가역적 비핵화 상황에 따라서 전향적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음.
- AIIB는 중국, 러시아, 한국 등이 지분율(투표권)이 높은 핵심 국가군을 이루고 있어 북한 지원 결정에 상대적으로 유리함.
- AIIB의 투표권 배분상 중국, 러시아, 인도, 한국 등 역내 회원국이 75%를 차지하며, 25%에 해당하는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역외 회원국들도 미국이 주도하는 북한 비핵화가 이루어질 경우 북한 개발 지원에 전향적인 입장을 보일 가능성이 있음.
- 또한 북한 개발 투자는 아시아 인프라를 집중 개발하여 역내 경제성장을 이끈다는 AIIB의 설립 목표에도 부합하는 사업으로 평가됨.

4) 장형수 외(2015)에 따르면, 북한의 각종 국제금융기구 가입 지원은 결국 북한의 IMF 가입 지원으로 귀결됨. IMF 가입을 위해서는 신규 회원국의 지분을 산정하기 위한 국민소득, 무역규모, 외환보유액 등 지표 공개가 필요하고, 총투표권의 2/3 이상을 보유하는 과반수 가입국이 총회의 표결에 참석하여, 이들이 행사한 투표권의 과반수 찬성이 필요함. 이 과정에만 최소 1~3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됨.

5) AIIB, Articles of Agreement(In English version), Article 3. 3: ...application for membership in the Bank shall be presented or agreed by the member of the Bank responsible for its international relations.

6) WB 등 다른 MDB들도 일반 신탁기금, 특별 신탁기금(Trust Fund)을 활용하여 비회원국에 대한 기술 지원(TA: Technical Assistance) 및 인프라 개발 지원을 할 수 있으나, 본격적이고 의미 있는 자금지원을 위해서는 해당 기구 가입이 필요함. MDB들의 비회원국 지원방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장형수 외(1998), 「통일대비 국제협력과제: 국제금융기구 활용방안을 중심으로」 참고.

표 2. AIIB의 회원국 지원방식과 비회원국 지원방식 비교

국가	회원국 지원방식	비회원국 지원방식
관련 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원국 자금 지원 가능 - 회원국 가입 자격의 기본 조건은 IBRD 혹은 ADB 회원국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회의 최대 다수결(Super Majority)투표에서 통과될 경우, 비회원국에 대한 자금제공도 가능
합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은 IBRD, ADB 중 적어도 한 기구에 가입한 이후에 AIIB 가입이 가능 - 이를 위해서는 북한이 자국 재정 공개를 수용하거나(IBRD), ADB 총회 투표의 3/4의 승낙을 얻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원국의 2/3, 투표권의 3/4 이상이 필요(최대 다수결 통과 요건)

자료: AIIB Article of Agreement 참고하여 저자 정리.

■ 그러나 AIIB는 다른 MDB에 비해 수익성을 추구하는 상업은행(commercial bank)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북한 개발 투자에서 다른 MDB에 비해 사업 수익성을 상대적으로 더 강조할 가능성이 높음

- AIIB는 다른 MDB와 달리 저개발국을 위한 ODA성 양허성 차관(concessionary loan)이 없는 등 수익성을 중시함.
 - AIIB는 프로젝트를 선정할 때에도 지속적 현금 흐름(cash flow)과 부가가치 창출(value addition)이 가능한지 여부가 가장 중요한 판단 요소임.⁷⁾
- 따라서 북한의 비핵화, 개방화가 진행된 후에도 철저히 수익성 있는 프로젝트(bankable project)가 있을 경우에만 투자를 고려할 것으로 판단됨.
 - 월스트리트저널(WSJ)과의 인터뷰(2015. 9)에서 진리권 총재는 AIIB가 6~10%의 수익을 낼 것으로 전망한 바 있는데, 이는 세계적인 저금리 상황에서도 AIIB가 높은 수익률 달성을 중시하고 있다는 의미임.⁸⁾

■ 또한 북한 개발 사업에는 각종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AIIB의 북한 인프라 투자는 리스크 평가 및 헤지가 충분히 이루어진 후에 가능할 것임.

- AIIB는 주로 장기(15년 이상) 인프라 투자에 민간 자본과 함께 투자하는 것을 선호하는 상업형 투자 은행에 가깝기 때문에 사업 리스크를 철저히 고려할 것임.
- 따라서 AIIB가 북한 인프라 개발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정치적, 외교적 측면을 포함한 대북 투자의 각종 리스크를 평가하고 제거·완화하는 과정이 필요함(표 3 참고).
 - 다만 세계 최빈국 중 하나이자 장기간 폐쇄형 사회주의 국가 체제를 유지해온 북한의 사업 리스크는 매우 높고 관리하기도 어려워 AIIB의 북한 투자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됨.

7) 이동익(2018), 2018년 일대일로 한중 경제 심포지엄 발표자료(2018. 5. 9).

8) 조선비즈, 「진리권 AIIB 총재 “중국 편에 안할 것...20개국 가입 대기 중”」,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5/09/20/2015092001661.html(검색일: 2018. 5. 11).

표 3. 북한 인프라 사업의 각종 리스크

구분	내용
정치적 리스크	- 북한 관련 국내의 정치적 불안정성: 향후 북한이 비핵화를 성공적으로 완수할지, 대북제재 해제로 연결될지 분명치 않음.
제도적 리스크	- 외자기업들이 종종 직면했던 북한의 법적, 제도적, 행정적, 관행적 리스크: 북한의 불합리한 법, 제도, 행정 명령 등에 의해 외자기업의 대북 투자 사업이 번번이 좌초되거나 일방적으로 취소할 가능성 ⁹⁾
수익성 리스크	- 북한의 낮은 국민소득, 낙후된 각종 인프라 등으로 투자에 비해 충분한 수익을 거두지 못할 가능성

자료: 이현태, 김준영(2018. 6),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의 북한 개발 투자 가능성과 시사점」, 『현대중국연구』, 제20집 1호를 참고하여 저자 정리.

■ 또한 AIIB가 수익성을 높은 상업적 자원 투자에 집중하기 때문에 무상 증여(grant)나 양허성 차관 등 ODA성 자금지원을 선호할 북한이 AIIB 투자 유치에 적극적이지 않을 가능성도 고려해야 함.

- 북한은 상환 부담이 없거나 적은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 국제금융기구들의 양허성 차관, 일본의 식민지 배상금, 한국의 남북협력기금 등을 우선적으로 선호할 가능성이 높음.

■ 종합적으로 볼 때, AIIB의 북한 개발 투자는 북한 비핵화 문제의 실질적 진전, 대북제재의 해제, 수익성 있는 프로젝트 발굴과 철저한 리스크 평가, AIIB 총회 최대 다수결 통과, 북한정부의 AIIB 자금 활용 의지 등 많은 절차와 시간이 필요한 사안으로 판단됨.

나. 지원 가능 방식

■ 북한 개발 투자가 본 궤도에 오르면, AIIB는 환경친화적, 초국경 상호 연계성 강화, 민간자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인프라 프로젝트에 우선적으로 지원할 가능성이 높음.

- AIIB는 투자 방향으로 ① 지속가능한 인프라(Sustainable Infrastructure) ② 국가간 상호 연계성(Cross-country Connectivity) 강화 ③ 민간자본의 참여 유도(Private Capital Mobilization)를 강조

○ ① 지속가능 인프라: 환경친화적인 인프라 건설을 추진함으로써 각 수원국의 환경 및 개발 발전 요구에 부합하는 인프라 프로젝트 ② 국가간 상호 연계성 강화: 지역과 지역, 국가와 국가 간의 연결성을 강화하는 초국경 인프라 프로젝트에 주안점을 둠. 가령 중앙아시아, 남아시아, 중동 등을 비롯한 아시아 각 지역을 연결하는 도로, 항만, 통신, 에너지 인프라 프로젝트 ③ 민간자본의 참여 유도: 다른 MDB들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가운데, 민간자본의 인프라 프로젝트 참여를 적극 독려함.

- 또한 AIIB는 3대 운영 원칙 중 하나로 ‘Lean(효율성)’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북한 사업 추진이 결정된다면 비교적 빠르게 진행할 가능성이 있음.

9) 임호열, 김준영(2015), 「북한의 경제개발구 추진 현황과 향후 과제」, KIEP 오늘의 세계경제, Vol. 15, No. 11, p. 12.

- AIIB는 3대 운영 원칙으로 'Lean, Clean, Green'을 제시한 바 있는데, Lean(효율)은 다른 MDB와 달리 상임이사회를 두지 않고 실무진 위주로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하며 관료주의 발생을 방지하고, Clean(윤리)는 윤리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부패 관련 행위에 대해 무관용하며, Green(환경)은 파리기후협약을 준수하며 친환경 인프라 건설 주력하자는 의미임.¹⁰⁾

■ AIIB가 북한 인프라에 투자하는 방안으로 ① 개발 가능 인프라 사업 발굴·조사 등에 프로젝트 준비 특별 기금을 지원하는 방안 ② 정부보증사업에 타 MDB 등 다른 금융기관들과 공동유자로 참여하는 방안 ③ 북한 인프라 개발 펀드를 설립하고 다양한 국내외 자본을 유치하여 여러 사업에 투자하는 방안이 유력

- 우선 북한에 프로젝트 준비 특별기금(project preparation special fund)을 지원하여 향후 인프라 사업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음.
- 프로젝트 준비 특별기금은 저소득 개발도상국의 인프라 사업 초기 단계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서 2016년 6월 부터 중국, 영국, 한국 등이 AIIB 내에 적합한 기금으로 지역적 효과가 큰 인프라 사업 발굴·조사 등을 위해 수원국 정부에 공여할 수 있음.
- ADB 등이 특정 국가에서 본격적인 인프라 사업을 개시하기에 앞서 이 같은 기술지원(TA: Technical Assistance)을 먼저 추진한 사례에 비추어보면, AIIB도 북한에 대한 프로젝트 준비 특별기금을 먼저 지원하면서 차츰 본격적 인프라 투자를 시작할 가능성이 높음.
- 또한 AIIB의 그간 승인 인프라 사업들의 특징을 보면, 타지키스탄 두산베·우즈베키스탄 국경 도로 개선(Dushanbe·Uzbekistan Border Road Improvement Project)처럼 단일 인프라 사업에 다른 MDB 및 수원국 정부와 공동유자(Co-financing)를 통해 참여하는 방식이 있는 반면, 인도 인프라 펀드(India Infrastructure Fund)처럼 기금을 마련하여 인프라 사업들에 지분(equity) 투자를 추구하는 방식이 있음.
- 인프라 사업 중에는 전자가 대부분으로 AIIB가 다른 MDB, 수원국 정부와 함께 진행하는 공동유자사업이며, 후자는 AIIB가 민간 자본을 끌어들이어 전체 펀드를 조성하고 이후 사업 프로젝트를 선정한 후 지분을 사들이는 방식으로 투자하는 형식임(표 4 참고).

표 4. 북한 개발 투자 시 참고 사업 모델

(단위: 백만 달러)

국가	프로젝트명	승인날짜	분야	사업 규모	자금 조달 구조(%)	비고
타지키스탄	두산베·우즈베키스탄 국경 도로 개선(Dushanbe·Uzbekistan Border Road Improvement Project)	2016.6.24	교통/운송 (도로)	105.9	AIIB(26.0%) EBRD(59.0%) 타지키스탄 정부(15.0%)	공동 유자
인도	인도 인프라 펀드 (India Infrastructure Fund)	2017.6.15	multi-sector (인프라 금융)	750	AIIB(최대 20.0%) 기타(80.0%)	지분 투자

자료: AIIB 프로젝트 웹페이지(<https://www.aiib.org/en/projects/approved/index.html>, 검색일: 2018. 1. 15)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10) 이현태, 김준영, 오윤미(2018),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은 어떠한 협력을 추구해야 하는가?」, 『한중관계연구』, 제4권 1호 참고.

- 기존 사업 기록을 분석해 보면, AIIB는 북한 개발이 시작될 경우 먼저 적절한 수익성이 보장되는 정부보증부 용자(Sovereign-backed loan)에 다른 MDB, 국제(한국)금융기관 등과 함께 참여하는 방식을 선호할 것임.
- 북한 사업의 높은 리스크와 신생 MDB로서의 AIIB 역량 한계를 고려할 때, 독자 사업보다는 이런 공동 사업이 당분간 중심이 될 가능성이 높음.
- 반면 펀드 사업은 프로젝트에 직접 지분 투자를 하는 방식으로 용자보다 수익률이 더 높을 수 있지만 그만큼 손실 위험도 커서 수익률에 대한 높은 확신이 있어야 가능한 투자 방식으로 판단됨.
- AIIB의 펀드 사업 방식은 기본적으로 민간 자본의 인프라 투자 참여를 적극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이후 북한 개방 과정에서 한국·일본·미국·중국 등 주변 경제 강국들의 금융기관들이 북한 인프라 사업에 적극적일 경우 AIIB가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으로 생각됨.

■ 시기별로 보면, 북한 개발 투자 초기에는 프로젝트 준비 특별기금을 활용한 TA 지원, 정부보증부 공동투자사업 위주로 참여하다가 점차 민간 자본의 참여를 적극 유도·조직하면서 AIIB·민자 협력 투자를 늘려나갈 것으로 판단됨.

- AIIB는 ‘Mobilize Private Capital’ 등으로 압축되는 민간 부문과의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해왔기에, 북한 개발에 AIIB가 장기적으로 결합할 경우 어떻게 민간 투자자를 안정적으로 보호하여 민간에서 자금 조달을 유지하는 것이 점점 중요해질 가능성이 높음.
- AIIB는 ‘No crowding-out, crowding-in by mobilization’ 원칙, 즉 민간 자본에 경쟁력 있는 시중 금리 수준을 제시함으로써 적극적으로 투자를 유치하며, 민간과의 협력방식으로는 협조용자(Co-financing), 특수 목적 펀드(special purpose fund), 프로젝트 파이낸스(Project Finance), 민관협력 방식(Public-Private Partnership) 등을 활용하고자 함.

■ AIIB의 유망 투자 사업으로는 AIIB 회원국(한국, 중국, 러시아)과 북한이 공동으로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초국경 협력 인프라 사업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됨.

- 비회원국 지원 관련 정관을 검토해보면, 북한에 대한 AIIB의 인프라 투자 대상은 GTI 사업 등 중·북, 중·러 접경 지역에서 진행되는 북한과 주변 AIIB 가입국들이 동시에 이익을 향유할 수 있는 초국경 교통 인프라 사업이나 초국경 에너지 사업이 될 가능성이 높음.¹¹⁾
- 따라서 한국의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및 ‘신북방정책’에서 남·북·중, 남·북·러의 초국경 교통·에너지 인프라 사업과 접목 가능

11) AIIB는 비회원국 지원 시에는 회원국의 이익에 도움이 주는 사업을 고려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The Bank may, in special circumstances, provide assistance to a recipient not listed in sub-paragraph...(i) shall have determined that such assistance is designed to serve the purpose and come within the functions of the Bank and is in the interest of the Bank’s membership(AIIB Article of Agreement 11).

4. 시사점

■ AIIB의 북한 개발 투자는 여러 어려운 단계를 통과해야 가능한데, 첫째, 북한의 비가역적 비핵화 진행과 대북제재의 해제, 둘째, 투자 가능 사업들의 각종 리스크 평가와 비용-편익 분석을 통한 수익성 확인, 셋째, AIIB 이사회 논의와 총회 최대 다수결 통과, 넷째, 북한정부의 적극적 협력 의지 등이 필요함.

- 따라서 실제 사업 추진에 이르기까지는 AIIB, 한국, 북한, 국제사회 등 여러 당사자들의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여러 어려움을 극복하고 AIIB가 북한 개발 사업에 참여하게 된다면 북한과 AIIB 양자에 큰 의미가 있을 것임.

- 북한의 입장에서는 아시아 주요 MDB인 AIIB가 북한 개발에 참여함으로써 북한 개발의 중요성을 국제사회에 환기시키고 여러 국제 투자 주체들의 사업 참여를 유도한다는 상징적 의미가 있음.
- AIIB의 입장에서는 북한의 정치적 리스크, 내부 시스템 리스크, 수익성 리스크를 관리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데 성공한다면, 내부 역량, 즉 프로젝트 선정·관리·실행 능력을 크게 고양시키고 아시아 대표 MDB로서 위상을 크게 높이는 좋은 계기가 될 것임.
- AIIB에게 북한 투자는 동남아시아, 중앙아시아를 넘어서 본격적인 동북아시아 인프라 개발을 시작하는 계기가 자 북한 개발을 선도하는 국제금융기관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임.

■ 한국정부는 북한의 비가역적 비핵화가 진행되고 대북제재가 해제되면서 북한 개발 국면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면 AIIB의 북한 개발 투자 및 북한의 세계금융기구 가입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음.

- 북한의 개발 자금 수요는 매우 크나 현재 정부와 국제사회에서 동원할 수 있는 자금은 매우 부족하기에 AIIB의 북한 인프라 투자를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음.¹²⁾
- 다만 국내 일부의 기대와는 달리, AIIB의 對북한 투자는 단기에 쉽게 이루어질 수 없는 지난한 과정을 겪어야만 가능하기에 차분한 접근이 필수적
- 특히 북한 개발이 비단 북한만이 아닌 중국 동북, 러시아 극동 등 동북아 지역과도 연계된다는 점을 인식, 홍보하여 AIIB의 참여에 대한 주변국들의 관심과 찬성을 이끌어내는 전략이 필요함.¹³⁾
- 또한 정부는 자금조달 루트를 더욱 다양화하기 위해서 북한이 IMF, WB 등 국제금융기구에도 최대한 빨리 가입할 수 있도록 측면 지원해야 함.
- 장기적으로는 동북아개발은행과 같은 지역개발 금융기관 설립을 고려하는 등 국내외 금융시장으로부터 북한 개발을 위한 공적자본, 민간자본을 유치하는 모색을 다양하게 진행해야 할 필요가 있음. KIEP

12) 한국은 AIIB 지분을 5위 국가이자 많은 한국인 직원(11명)이 근무하는 등 AIIB에서 위상이 높아 이런 역할 수행에 대한 기대가 높음(2018년 5월 현재 AIIB 직원 180명 중 한국은 중국에 이어 직원 수 2위).

13) 한국·북한·중국 동북·극동러시아를 연결하는 인프라 프로젝트 방안을 한·중·러 삼국 정부가 선 발굴하여 AIIB에 제시할 수도 있음. 김준영, 이현태(2017. 12), 「일대일로 구상에서의 중국 동북-한국의 협력 평가와 시사점」, 『현대중국연구』, 19집 3호 참고.